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55-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교육지표 – 2021년: 대학 진학 및 학력에 대한 인식

2021. 11. 15.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대학 취학률의 변화

2020년 대학 취학률 70.4%(남학생 68.2%, 여학생 72.9%)
여학생 대학 취학률은 2015년부터 남학생을 앞서기 시작,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2020년 대학 취학률은 70.4%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2005년(3.9%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2.6%포인트였다. 2011년부터 대학취학률 감소세가 이어져 2018년에 66.9%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2년 연속 반등하였다.

작년 여학생의 대학 취학률은 72.9%, 남학생의 대학 취학률은 68.2%로 여학생의 대학 취학률이 4.7%포인트 높았다. 여학생의 대학 취학률은 2015년 처음으로 남학생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이후 매년 그 차이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출처: 교육단계별 남녀 취학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5&clasCd=7).

대학 취학률,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2020년 기준 70.4%(남학생 68.2%, 여학생 72.9%)
여학생 대학 취학률은 2015년부터 남학생을 앞서기 시작,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52.5	55.4	56.8	59.0	62.2	66.1	67.9	70.3	70.6	70.2	69.3	69.7	69.0	68.6	67.7	67.5	67.3	67.4	66.9	67.8	70.4
남학생	57.2	60.4	61.4	63.0	66.1	69.6	70.9	72.8	72.7	72.1	70.7	71.0	69.9	69.0	67.9	67.1	66.3	66.1	65.1	65.7	68.2
여학생	47.6	50.0	52.0	54.6	57.9	62.3	64.6	67.4	68.3	68.1	67.8	68.2	67.9	68.1	67.6	67.9	68.4	68.8	68.8	70.1	72.9

자료: 교육단계별 남녀 취학률 중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청, 「2017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주석: 취학률 = (재적학생수 ÷ 취학적령인구) X 100.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은 만 18-21세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대학 과정 등을 포함하여 집계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가야 한다 65%, 2년 전인 2019년 8월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였다. 세 명 중 두 명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2년 전인 2019년 8월 조사결과(https://hrcopinion.co.kr/archives/13604, 대학 가는 것 필요하다 63%, 그렇지 않다 36%)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성별이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가야 한다 65%, 2년 전인 2019년 8월과 비슷한 수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대체로)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2	42	65	30	3	33	2	100
성별									
남자	(498)	23	42	64	30	4	34	2	100
여자	(502)	22	43	65	30	2	33	2	100
연령									
18-29세	(176)	29	39	68	23	4	27	4	100
30-39세	(152)	18	46	64	32	3	35	1	100
40-49세	(185)	25	38	63	32	3	34	2	100
50-59세	(194)	21	41	62	34	3	37	1	100
60세 이상	(293)	20	46	66	31	2	33	1	100
학력									
고졸 이하	(527)	22	40	62	32	4	36	2	100
대재 이상	(473)	23	46	68	28	2	30	2	100
미성년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있음	(93)	21	45	66	27	6	33	1	100
초중고 자녀 있음	(177)	23	41	64	34	1	35	1	100

질문 :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 필요하다 66%
2년 전인 2019년 8월보다 9%포인트 감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1%)보다 높았다. 다만 2년 전인 2019년 8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포인트 감소하였다. 여자와 40대 이하,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 필요하다 66%, 2년 전인 2019년 8월보다 9%포인트 감소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매우+대체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9	47	66	25	7	31	3	100
성별									
남자	(498)	17	44	61	28	8	36	3	100
여자	(502)	21	50	71	22	5	27	2	100
연령									
18-29세	(176)	25	47	72	16	5	22	6	100
30-39세	(152)	21	52	73	19	5	24	2	100
40-49세	(185)	23	52	75	20	4	24	2	100
50-59세	(194)	14	44	58	33	8	41	1	100
60세 이상	(293)	15	44	59	30	9	39	2	100
학력									
고졸 이하	(527)	17	46	63	26	8	34	3	100
대재 이상	(473)	21	49	70	23	5	28	2	100
미성년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있음	(93)	25	52	77	16	7	23	0	100
초중고 자녀 있음	(177)	24	49	73	21	5	26	2	100

질문 :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대학 진학 위한 사교육 중요성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35%, 비슷할 것이다 45% 지난 2019년 8월 조사결과와 큰 차이 없어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앞으로 사교육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까?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17%)보다 높았다. 2019년 8월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결과이다.

현재보다 사교육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40% 이상으로 다소 높았고, 반대로 50세 이상에서는 사교육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사교육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1%로 높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사교육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대학 진학 위한 사교육 중요성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35%, 비슷할 것이다 45% 지난 2019년 8월 조사결과와 큰 차이 없어

(단위 : %)

	사례수 (명)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5	45	17	3	100
연령						
18-29세	(176)	45	43	8	4	100
30-39세	(152)	41	48	9	2	100
40-49세	(185)	38	49	11	2	100
50-59세	(194)	24	48	27	1	100
60세 이상	(293)	31	41	25	3	100
이념성향						
진보층	(251)	25	47	26	2	100
중도층	(391)	35	46	16	2	100
보수층	(283)	41	43	14	2	100
모름	(75)	44	39	6	10	100
미성년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있음	(93)	39	48	10	3	100
초중고 자녀 있음	(177)	36	48	15	1	100

질문 :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 학생의 노력과 열의 37%,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26%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37%가 '학생의 노력과 열의'를 꼽았다.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이라는 응답이 26%로 뒤를 이었으며 '가정의 학습 환경(12%)', '학생의 타고난 능력(11%)'도 10%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 반면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7%)', '교사의 지도(4%)' 등 교육기관을 꼽은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학생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노력과 열의 37%,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26%

(단위 : %)

질문 :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0.29 ~ 11.0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학력이 삶에 미치는 영향

살면서 학력에 따른 손해나 소외감 경험했다 40% 이상
학력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 있다는 응답도 42%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44%는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두 2019년 8월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3%로 높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2%로 낮지 않았다. 다만, 두 수치 모두 2019년 8월 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7%포인트, 5%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학력은 능력의 척도라는 응답은 41%, 학력은 인격의 척도라는 응답은 14%로 2019년 8월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살면서 학력에 따른 손해나 소외감 경험했다 40% 이상
학력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 있다는 응답도 42%

(단위 : %)

질문 : 다음의 문항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고졸 이하 응답자는 학력으로 인한 손해와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
수도권 4년제 대학 재학·졸업자 중에서는 56%가 '학력은 능력의 척도'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 중 57%가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52%는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두 대학 이상 학력인 응답자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이다. 대학 이상 학력의 응답자로 한정할 경우, 전문대 학력 응답자 중 46%가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해 4년제 대학 학력 응답자들에 비해 높았다.

비수도권 4년제 대학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45%가 학력이 높은 사람에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의 응답(44%)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수도권 4년제 학력인 응답자의 응답(33%)보다 12%포인트 높은 결과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 학력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는 32%가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23%)보다 9%포인트 높았다. 또한 56%가 '학력은 능력의 척도'라는 데 공감하였는데, 이는 비수도권 4년제나 전문대 학력을 가진 응답자, 고졸 이하인 응답자의 응답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이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학력으로 인한 손해와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
수도권 4년제 대학 재학·졸업자 중 56%가 '학력은 능력의 척도'라고 답해

(단위 : %)

	사례수 (명)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 있다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학력은 능력의 척도이다	학력은 인격의 척도이다
전체	(1,000)	48	44	42	23	41	14
성별							
남자	(498)	51	45	39	24	38	13
여자	(502)	46	43	45	23	44	14
연령							
18-29세	(176)	31	36	36	25	44	11
30-39세	(152)	47	41	42	27	46	19
40-49세	(185)	49	44	48	23	41	13
50-59세	(194)	55	48	42	23	40	13
60세 이상	(293)	54	47	41	21	38	14
학력							
고졸이하	(527)	57	52	44	22	39	16
대재이상	(473)	38	35	40	25	44	11
학력(상세)							
고졸이하	(527)	57	52	44	22	39	16
수도권 4년제 대학	(151)	32	31	33	32	56	11
비수도권 4년제 대학	(209)	37	37	45	26	38	11
전문대학	(101)	46	36	39	15	39	11
기타(외국 대학 등)	(12)	-	-	-	-	-	-

질문 : 다음의 문항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응답의 합, 기타 대학 재학·졸업자는 사례수가 적어 응답 결과를 표기하지 않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0.29 ~ 11.0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9월 기준 약 6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906명, 조사참여 1,33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6%, 참여대비 74.7%)
조사일시	• 2021년 10월 29일 ~ 11월 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